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인재는 누구인가?

우수한 인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대우 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시대다. 한명의 천재 사업가가 수 천명, 수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기업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래를 책임질 창조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적 인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또 창조적 인재란 누구를 말하는지 그것을 명쾌히 밝혀 내기는 힘들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의 최고 경영자가 된 타잔의 모습을 통해 미래 CEO가 될 만한 인재 상을 살 펴 보면 약간의 힌트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잔은 고릴라에 비해 체격도 작고 힘도 약하다. 정글에선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없다. 그가 고릴라 대장이 되어 정글을 호령하며 자신만의 세계와 질서를 창조 할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생명력과 꿈,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 덕분이다.

고릴라 엄마인 '칼라' 가 타잔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뿔뿔뿔뿔한 눈빛으로 고릴라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 장면은 타잔의 모진 생명력을 잘 보여준다. 험악한 고릴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피부가 찢겨나가는 아픔이 있지만 타잔은 견뎌 낸다. 나약하다면 벌써 정글에서 도태되거나 잡혀 먹었을 것이다. 어린타잔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고릴라 대장이 될 꺼야' 라며 꿈과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강인함으로 위험을 돌파 한 것이다.

또한, 타잔은 성장하면서 칼이라는 무기를 발견하고, 돌 창을 만들어 내곤 자신만의 강력한 이빨로 사용한다. 올가미 만드는 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원주민의 활 쏘기를 몰래 따라 한다. 타잔은 그림과 글자를 통해 스스로 영어를 이해하며 배운다.

이제 타잔은 고릴라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문명인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타잔은 꿈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 이런 지식과 지혜를 배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정글세계의 고릴라와는 확실히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문명세계와 문명인들을 접하며 새로운 정글세계를 만들어 간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갈 한 자루만 던져줘도 사냥감을 잡아 올 수 있는 강인한 인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의 '타잔' 은 돈 냄새를 잘 맡고, 현장 경험이 되어 있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실력은 현장에서 승부가 나게 마련이다.

이들은 책상에서 하는 업무와 상상력을 넘어 정글 같은 척박한 영업 현장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기획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업계에 큰 소리 치며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다.



관리와 규제를 뛰어 넘어 자유롭게 생활한다. 부르기 보다는 먼저 다가가고, 닫힌 영혼과 마음을 열어 짓는다. 생명력 있는 눈빛을 가진 어린 타잔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면 지나친 상상일까? [KOVN](#)

강대진 _ 한겨레리빙, 조이닷컴, 웹나라에 근무했으며 (썬커머스에 이전트를 창업했다. 마케팅, 영업,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웹나라 재직시절 타잔경영을 창안해 참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21세기 경영법을 총망라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는 e랜서로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글쓰기, 강의, 신사업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글 CEO》가 있다.